

Sermon Notes:

서론: 죽음을 두려워했던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
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다-> 천국과 지옥이 있음
그 기준은 누가 정하며, 그 기준은 무엇인가?-> 죄 문제

본론:

1. 요한복음 3:16 절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
가. 하나님은 사랑이시다.
하나님은 계신다: 성경이 증거, 자연도 증거
지금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(요일 4:8)
나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.
독생자를 주셨다->성육신과 죽으심의 의미
이유-> 세상의 죄 때문: 죄의 대가는 죽음
죄의 DNA + 지은 죄-> 대속물이 되심 (마 20:28)
다.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.
성육신과 죽음의 목적: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함
영생 아니면 영벌: 중간 단계인 연옥은 결코 없음
믿으면 족보가 바뀌기에 영생을 얻음 (요 1:12)
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음: 하나님과 단절됨
2. 선교사들의 선교지에서 첫 번째 번역: 요 3:16
3. 장수가 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진정한 복!
믿는 사람은 한 번 죽고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 죽는다.

결론: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
영생을 얻고 거듭나 새로운 인생을 사는 복을 누리십시오.

암송구절: 요한복음 3장 16 절

‘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
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’

Memo/Reflection:

1. 죄의 결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가?
2.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확신하는가? 계시다면?
3. 죽음 이후에 살아왔던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겠는가?